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족부족관절

논문제목 족관절 전치환술 후 시상면에서 거골의 위치변화 : 아탈구된 거골이 관절 치환술 후에 정상 위치로 정복이 되는가?

영문제목 **Change of the talus position in sagittal plane after TARA : Is the subluxed talus attain normal position in sagittal plane after TARA?**

발표자 남상욱 책임저자 이우천

저자 조재호, 이우천, 최홍준, 석주필, 남상욱

기관명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족부센터

서론 : 족관절 전치환술 시, 관상 면에서 거골체부의 위치와 거골 대치물 치환술 후 거골의 위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시상 면에서 거골의 해부학적인 위치와 거골 대치물 치환술 후 거골의 위치 간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상 면에서 술 전 거골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족관절 치환술 후에 거골의 위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고, 거골 대치물의 위치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족관절 전치환술 시, 관상 면에서 거골체부의 위치와 거골 대치물 치환술 후 거골의 위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시상 면에서 거골의 해부학적인 위치와 거골 대치물 치환술 후 거골의 위치 간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상 면에서 술 전 거골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족관절 치환술 후에 거골의 위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고, 거골 대치물의 위치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결과 : 술 전 거골의 위치가 전방 전위된 경우가 36예, 중립 위치인 경우가 9예, 후방 전위된 경우가 10예이었으며, 전방 전위된 경우는 모두 수술 전에 비하여 수술 후 후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술 후 6주, 3개월, 6개월, 12개월에 유의한 후방 이동을 보였고 술 후 12개월에 최종 위치가 중립 위치였다. ($p < 0.05$) 술 전 거골의 위치가 중립인 경우는 술 후 중립 위치를 유지하다가 술 후 12개월에 후방 이동 하는 경향을 보였다. 술 전 후방에 거골이 위치한 경우는 술 후 전방 이동하였으나 점진적인 후방 이동을 하여 술 후 12개월에는 수술 전보다는 정복이 된 후방 위치를 보였다. 또한, 55명 전체의 거골의 위치 변화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수술 후 3개월부터 방사선학적으로 유의한 후방 이동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골 대치물의 위치는 수술 전 거골의 위치와 관계없이 경골 대치물에 대해 전방으로 평균 9% 전방으로 삽입되었다. 수술 전 거골의 위치에 따라 전방 전위, 중립, 후방 전위 집단 간에 시상면에서 경골의 축에 대한 경골 천장의 각도와 거골-제 1 중족골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 $p = 0.001$) 수술 전 거골의 위치가 전방 전위된 경우는 경골의 축에 대한 경골 천장의 각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수술 전 거골의 위치가 후방 전위된 경우는 거골-제 1 중족골각이 유의하게 낮았다. ($p = 0.0003$, $p = 0.0036$)

결론 : 시상 면에서 거골의 위치가 전방 전위된 경우는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거골의 위치가 중립 위치로 정복되며, 시상 면에서 거골의 위치에 관계 없이 경골 전면에 맞추어서 거골 대치물의 전방선을 절삭하면 거골 대치물이 경골 대치물에 대해 전방으로 전위된 위치에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

acknowledgment :

족관절 전치환술, 거골